

고등학교의 교복변형과 패션 액세서리 착용행동

School Uniform Modification and Fashion Accessory Wearing Behavior of High School Students

김용숙* · 전채령

전북대학교 의류학전공 교수, 인간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 전주근영여고 교사

Kim, Yong-Sook · Jeon, Chae-Ryeong

Dpt of Clothing & Textiles,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Chonbuk Nat'l Univ. ·

Teacher, Jeonju Keunyoung Girls' High School

Abstract

There are many students who modify their uniforms and wear fashion accessories to pursue their individualities.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were to identify school uniform modification and fashion accessory wearing behavior of high school stud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High school students considered that the uniform was desirable because the uniform showed identity best, but many students complained that the uniform was uncomfortable in activity. The most accessory used for the uniform was the cellular phone handle.

2. The uniform modification behavior was highly distinguishable at the coeducational school, the vocational school, and the art or physical school. They modified their uniform to pursuit slim and individuality. The uniform modification was for the beauty aspect more rather than practical aspect of uniform, and was proportional to the degree of the appearance, and in case of pants, the length and width of the pants showed increasing trend compared to the past. They considered accessory wearing as a compensational expression of the most of students who were not actively behaving on the uniform modification.

Key Words : school uniform, school uniform modification, fashion accessory wearing behavior

I. 서론

청소년 중기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신체적 변화가 급격하고 의미있는 인지적 성장을 경험하며 동료의 승인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또 이 시기에는 신체발달과 정신적 발달 면에서 성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으로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회에 참여할 기회도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등학생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심리적 동요가 심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시기를 '질풍 노도의 시기' 또는 '심리적 이유기'라고도 한다(김태련, 2004; 천춘애 등, 1994). 이들은 추상적 사고가 미숙하여 타인이 평가한 자아상에 의존도가 높으며,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의복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 보다 눈에 보이거나 직접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외형에 나타나는 의복이나 외모를 통하여 동료집단과의 소속감을 형성하여 심리적 안정을 얻으며 사회적 인정을 얻고자 함에서 비롯된다(Ryan, 1966). 또한 인생에서 가장 예민한 감성을 지닌 고등학생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부딪치고 있는 크고 작은 현상들에 대해서 그들이 반응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과 행동에 매우 민감하다.

복식이 인간 행위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연령층에서나 중요하다. 특히 자신의 신체나 용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에 있어서 복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항상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여기며,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를 의식하면서 행동하게

* Corresponding author: Yong-Sook Kim
Tel: 063) 270-3847, Fax: 063) 270-3799
E-mail: kys3847@chonbuk.ac.kr

되는 고등학생에게 있어 복식은 신분과 소속감, 유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학생의 공식적인 의복으로 정장의 역할까지 하는 교복은 그들에게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복식이다.

본래 교복은 단체생활을 원활히 하고 학생에게 면학의식을 갖게 하며, 획일화된 평준화 정책으로 개인의 특성을 없애기 위해 단추와 모자를 포함하여 통일된 학생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개방정책의 일환인 1983년 교복 자율화 조치 이후 교복이 사라지게 되자, 자녀들의 의복 구입비 지출의 증가, 교내·외 활동에서의 생활지도 상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1986년 교복 자율화 조치가 철회되고 교복이 재등장 하게 되는데 새롭게 착용하는 교복은 이전의 획일적이고 딱딱한 모습과는 달리 학교에 따라 디자인이 다양했으며 종전보다 밝은 색상이 주류를 이루었다. 종래의 교복이 어떤 소속감이나 통제성을 강하게 나타냈다면, 최근의 교복은 소속감과 함께 심미성이나 기능성 등을 더 고려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복은 여전히 학생들의 탈선 방지와 빈부 격차로 생기는 위화감 해소, 의복비절감, 애교심 함양이라는 의도가 더 짙게 깔려 있어서 자율화 이후의 디자인, 색상, 소재 등의 변화들이 고등학생들의 다양해진 교복 태도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게 되자 이에 여러 가지 변형된 교복 태도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최근들어 여학생뿐 아니라 남학생도 의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고등학생의 자유분방한 사고방식과 외도지상주의를 지향하는 사회 분위기가 남학생의 교복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해외 디자이너나 브랜드가 국내 교복 시장에 진출했고 또 국내 유명 디자이너와 대기업의 참여로 패션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교복이 갖고 있는 신분이나 소속감, 유대감을 불러 일으키는 수단 등의 전통적인 의미의 기능들을 유지하려는 기성세대들의 두발과 복장에 대한 규제가 다시 강화되기 시작하여 이에 따른 심화된 세대 간의 갈등은 또 하나의 사회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대부분 고등학교에서는 교복을 권장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고등학생 시기는 심미적인 영향이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시기이다. 기존의 고등학생의 교복에 대한 연구는 심리적 특성에 따른 교복관련 행동(이부희 등, 1996; 고애란 등, 1999; 이명희, 송영은, 2002), 교복에 대한 의식이나 만족도(김용숙, 2001; 이소은, 2001; 임주희, 2004) 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고 학교변인을 중심으로 하여 남녀, 도시와 농촌, 인문과 실업, 예·체능 고등학생 등을 포괄하는 교복 착용과 변형, 그리고 패션액세서리 착용에 대한 계

계적인 연구는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고등학생들에게 합리적인 교복 행동의 틀을 제시하고, 학교 측에 바람직한 교내·외 교복 생활 지도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교복생산업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고등학생의 교복 변형과 패션 액세서리 착용행동을 연구하였다.

II. 문헌 고찰

1. 고등학생의 특성

고등학생은 16세~18세로 청소년 중기에 해당된다(Hurlock, 1978). 인간은 청소년기를 거치는 동안 다양한 사회와 매체를 통해 사회화 과정을 밟아서 사회 성원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들은 성인 세대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가치규범, 생활양식, 사고의 유형 등을 내면화 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교량적 역할을 한다.

고등학생이 되면 뇌의 중추가 뇌하수체를 자극하여 성장을 촉진하는 호르몬과 생식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므로 신체적·성적 성숙이 이루어진다. 신체적 측면에서는 급격한 성장으로 성인의 수준에 달하며, 생리적인 여러 기능이 완성되어 에너지가 왕성해 진다(천춘애 등, 1994). 이 시기에 신체적 성장이 현저히 일어나 키나 몸무게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거의 성인의 키와 몸무게에 도달한다. 신체 및 운동기능이 급격하게 발달하며 개인적 특성이 형성될 뿐 아니라 현저한 성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성적 발달로 인하여 이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이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자신의 외모 뿐 아니라 의복에 대한 관심도 증가한다(김동배, 권중돈, 1994).

고등학생들은 감정이 풍부하며 미적 욕구와 이성의 동경, 그리움 등의 정서가 고조되었다가, 이성의 발달로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허탈감과 실망감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이때는 일상의 어느 시기보다 가장 강한 시기이나 정서상 문제, 자아의식의 고양, 내성적 태도의 발생, 독립 의욕의 증대 등이 이루어지고, 자신이 성숙한 성인처럼 행동하며 모방을 하기도 한다. 고등학생은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고, 신체적으로 성숙기에 이르게 되어, 그는 자기 자신의 정체에 관심을 갖게 되며 그들 내부에 일어나는 심리 사회적인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성인으로서의 과제에 당면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가 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 느끼는 것과 비교해 보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 여기서 새로운 자아정체감

이 발달하는데, 이것의 혼란과 미숙으로 자아 중심적 사고를 하게 된다. 자아 중심성이란 청소년이 자신의 조망과 타인의 조망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자아중심성은 사춘기의 급격한 신체적 변화 및 자아정체감의 추구하고 관련되어 이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는 자기집중성향 및 자의식경향과 연관될 수 있다.

지적 기능과 사고는 정열적이고 적극적이긴 하나 현실 생활에 기초를 둔 것이라기보다는 추상적, 관념적 이상적인 사회를 척도로 한 경향이 강하여 자기중심, 독선주의와 흑백 논리 및 극단적 사상에 빠지기 쉬우며 경험, 실증적 기초의 부족으로 주위의 감언이설, 선동에 휩쓸리기 쉽다. 청소년기에는 정서가 매우 강하고 변화가 심하며, 극단적인 정서경험을 한다. 이러한 정서적 특성 때문에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른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극단적 정서변화는 성적 성숙과 많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은 2차적 성적 특징의 발달과 그로 인한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성적 색채가 강한 정서를 경험하게 되며, 성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성적 수치심이 강해지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면서도 이를 거부하거나 반대로 허세적인 반항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기는 감정이 격하고 기복이 심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낙관적, 비판적 감정이 교차하기도 하고 자부심과 수치심을 강하게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부모나 형제, 그리고 친구들과 공유할 수 없는 감정의 경험을 통해서 고립감을 느끼기도 한다. 다양한 감정 중에서 강한 수치심, 죄의식, 우울, 분노, 수줍음 등은 문제 행동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사회적 변화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첫째, 청소년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변화와 청소년기에 발달되기 시작하는 새로운 사고체계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다. 둘째, 부모와 사회로부터 청소년들에게 인정되는 어느 정도의 자유와 책임감이 사회적 변화를 유발시키는데 기여한다. 그 이유는 청소년 전기에는 아동기 시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더 많은 장소에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 시기에는 또래집단이 급속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점차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독립성을 가지게 된다. 넷째, 청소년 전기에는 같은 성(性)을 우선적으로 친구로 삼는 것에서 다른 성과 친밀해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게 되고 학습하기를 시작한다. 한편 청소년 후기의 청소년들은 감독하는 사람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도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이 비교적 잘 발달되고 친구와의 우정이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한다(심은숙, 1997).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아가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교우관계가 나타나고, 집단에 대한 통합감이 생기고 소속 집단으로부터 승인이 되고, 받아들여져 안정감을 찾으려는 욕구가 강하여 진다. 특히 또래와의 관계를 중요시 하여 또래 친구와의 사귀기로 서로 공감하고 위안을 주고 받으며, 정서적 안정감을 가진다. 그러나 친구들의 행동에 무조건 동조하고 따라 하려 하거나 친구들과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난다.

고등학생들은 호기심이 많고 지적 욕구와 흡수성이 강하고 모방과 민감성, 과격성을 가지고 있다. 고등학생들의 행동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성보다는 감정의 본능에 집착하여 내용보다는 겉모양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자신은 남과는 뭔가 하나라도 달라야 한다는 개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유명상표, 제품번호의 구매행동을 보인다. 넷째, 청소년기는 외모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특성을 표현하고자 유행이라는 표면적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유행이 아닌 것에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고등학생들이 소속된 청소년 문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 문화는 타인 지향형의 레이다 문화라 할 수 있다. 타인의 태도나 의중에 집중하는 눈치 문화이다. 둘째 문화적 선진국의 유행에 무조건 따르는 추종문화, 사대문화, 아류문화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영상 문화이다. 매스 미디어가 현실 인식을 좌우하며 판단, 평가하도록 하며 가치기준, 행동, 사고방식까지 좌우한다.

이와 같이 고등학생들은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며,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 그리고 부모, 또래 집단, 학교의 사회화 과정 속에서 사회의 압력과 부모와의 갈등에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그러나 최근 고등학생들은 자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만들어 가며, 외부의 간섭을 거부하고 학교 내 단체 생활과 사회와의 접촉으로 사회에 적응하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다.

2. 교복 변형행동

교복(school uniform)은 제복의 한 형태로 학교에서 제정하여 재학생에게 착용토록 강요하는 의복의 형태이다(김용숙, 2001). 교복은 같은 연령범주, 같은 학교, 같은 목적 하에서 여러 활동을 한다는 것과 단체행동의 통일성을 이루고 그 안에서 개인의 역할을 지각할 수 있는 수

단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교복은 행동의 중심성과 학생의 자부심을 갖게 하고 경제적이고 생활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학생신분을 과도하게 노출하고, 미적 감각과 개성이 결여되기 쉽고, 비활동적이라는 단점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김영인, 강혜원, 1981). 또한 교복은 스타일, 소재, 색채를 통일시키며 각 학교에 맞는 상징성과 신분에 맞는 아름다움을 나타내도록 디자인해야 하며, 그리고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적절하도록 체격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는 것이 요구되며 경제성도 고려해야 한다(이해주, 2004).

8.15광복 이후 교복은 고등학교별 차이는 약간 있지만 상하 검은색 혹은 짙은 갈색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이어 1969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중학교 평준화 시책이 실시되면서 시·도별로 획일화되었고 이러한 스타일은 1983년 교복자율화 조치가 실시될 때까지 계속되었다(임주희, 2004). 점차 학생의 개성이 중시되면서 1983년 교복 자율화 조치를 계기로 청소년 캐주얼 시장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때의 자율화 조치는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왔다. 학생들은 자유복 선택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하였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의복 구입비를 많이 지불해야 하였으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행동을 규제하기 어려웠다. 비행이나 탈선을 하는 학생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대응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1986년에 교복자율화 조치를 철회시키고 정책적으로 교복 착용을 권장하였다(이수희, 1988). 과거의 교복 형태에서 벗어나 자유복의 장점을 선별하여 활동적이고 장식적으로 디자인된 교복을, 대기업에서 주도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교복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에는 제일합섬과 선경직물 등이 있으며, 대다수의 학생이 기성복 형태의 교복을 구입하여 착용하고 있다(김덕하, 김인숙, 2001).

이상과 같이 학생이라는 신분과 소속감을 나타내기 위해 입혀지기 시작한 교복은 시대에 따라 색상과 디자인이 변화하였다. 최근에는 학교별로 획일적인 교복이 학생들의 체형과 스타일에 맞는 형태로 바뀌고 있고, 소재, 디자인 등이 학교별로 획일적인 스타일에서 벗어나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기존의 맞춤 교복에서 브랜드 교복이 등장하면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층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소재도 기능성을 갖춘 소재로 다양화되고 있다(매일신문, 2004).

2006년 현재 약 3500억원 규모의 교복 시장은 SK 네트웍스의 스마트, 아이비 클럽, 엘리트 학생복이 80% 이상을 독식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가수 토니 안을 내세운 스쿨 룩스에 이어, 일본의 유명 디자이너 미치코 코시노를 기용한 브랜드 미치코 런던이 학생복 시장에 진출

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이코노미, 2006), 국내 유명 디자이너들도 교복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최근 교복 시장에는 가장 눈에 띄는 경향은 디자인의 강화이다. 많은 고등학생들이 교복을 따로 변형해 입자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늘씬하고 키가 커 보이는 디자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명 교복업체들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톱스타 연예인을 기용하여 광고를 펼치고 있다. '패션'과 '스타'이미지로 학생들의 교복이 고급화, 패션화 되어가고 있다.

고애란 등(1999)의 연구에서는 교복변형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은 스커트 길이이며 스커트 폭과 재킷의 품과 길이를 줄이는 것도 비교적 많다고 하였다. 또 자신의 학교 교복에 대한 평가에서는 교복 디자인의 미적인 측면, 활동성, 교복의 맞춤새에 대한 불만족이 많이 나타났다. 권숙희와 김혜정(2002)의 제주지역 여고생의 교복변형에 관한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67.3%가 교복을 변형한 경험이 있었으며 치수에 대한 불만족이 교복 변형의 중요한 원인이었고, 이는 활동에도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황진숙 등(2002)은 남·녀 고등학생의 교복 이미지 선호와 교복 변형의 행동의 비교에 관한 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교복 변형 연구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교복 변형이 많았으며, 교복 이미지로 독특하고 개성적인 이미지를 선호할수록 교복변형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정혜경과 김세희(2004)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여고생이 추구하는 교복 및 패션 액세서리 이미지를 알아본 결과, 교복의 경우 품위 있는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의의 경우 춘추복, 하복의 블라우스와 재킷, 조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길이, 폭, 어깨, 소매의 변형 방법을 제시였고, 하의의 경우 등절기에 바지를 착용하는 학교가 있어 바지를 포함한 스커트의 길이, 폭, 허리둘레의 변형 방법을 제시하였다. 정혜원과 정인순(2005)의 연구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은 청소년기의 특징인 자신이 돋보이도록 외모에 관심이 많으며, 관심 있는 동년배 집단에 속하려는 욕구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생활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착용하는 의복에 대한 동조성의 하나로 교복 변형을 피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선 고등학교에서 교복 착용이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고등학생들의 의복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획일화된 교복 형태를 변형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등학생들은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교복을 착용하므로 교복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였다.

3. 패션 액세서리 착용행동

교복 변형 외에 고등학생 시기에 나타나는 교복 행동의 하나로써 교복과 함께 착용하는 패션 액세서리를 들 수 있다. 패션 액세서리는 신체를 보다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화장이나 피어싱 등의 신체 장식과 의복이나 소품에 사용하여 신체를 꾸미는 패션 액세서리 등으로 복식을 장식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오늘날 패션 액세서리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패션 코디네이트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고, 의복착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품목이며, 항상 의복과 함께 착용되는 불가분의 존재이다.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은 대부분 교복을 입기 때문에 장식에 관심이 없고 유행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이들의 패션 액세서리 착용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패션 액세서리 착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김세희, 2004).

여자 중·고등학생의 복장 규범에 대한 유덕화와 박찬부(1991)의 연구를 살펴보면 여중생과 여고생의 복장규정의 각 유형 중 신발과 가방 항목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고생이 여중생보다 학교에서 규제되는 장식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했고 그 중 가방과 신발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패션 액세서리 착용에 관한 최은영(2000)의 연구에 의하면 중학생은 학교 다닐 때 항상 패션 액세서리를 사용하였고, 고등학생은 외출시 옷에 맞출 때 패션 액세서리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읍·면지역 학생들은 학교 다닐 때 항상 패션 액세서리를 많이 착용하고, 대도시 학생들은 외출 시 옷에 맞추기 위해 패션 액세서리를 착용하여,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외에서 패션 액세서리 사용이 많으므로 이에 따른 올바른 패션 액세서리의 사용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여고생의 교복 및 장식 행동에 관한 정혜경과 김세희(2004)의 연구에 의하면 장식행동의 규제에 전체 집단의 51.9%가 반대하였다. 그 이유로 학생에 대한 구속을 들어 교복 변형 규제의 불필요 이유와 일치하였다. 한편 학교 용의규정에 규제된 장식에 대한 행동에는 매니큐어의 사용이 가장 많았다.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장식 행동으로는 핸드폰이나 호출기 스트랩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패션 시계, 가방 장식용 열쇠고리 순이었다.

이상과 같이 고등학생들은 학교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분수에 넘치는 화려한 핸드폰 줄이나 패션시계를 착용하기도 하며, 일부 여고생은 매니큐어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의 패션 액세서리의 착용 비율이 높았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문제

- 1) 고등학생의 교복 착용, 교복 변형, 패션 액세서리 착용에 대한 의견과 실태를 파악한다.
- 2) 고등학생의 학교 변인에 따른 교복 변형정도와 패션 액세서리착용에 대한 규제의 차이를 파악한다.

2. 용어 정의

- 1) 교복 변형 - 교복은 다른 의복과는 달리 디자인, 소재, 봉제 등이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3년을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고등학생들의 불만족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교복변형행동은 교복 치수나 디자인의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또는 집단의 유행을 따르기 위해 행하는 모든 행동으로, 변형은 수선의 개념과 달리 의도적인 행위를 포함한다(황진숙 등, 2002; 정혜원, 정인순, 2005).

- 2) 패션 액세서리 - 고등학교의 용의 규정에 공통적으로 금지조항으로 제시된 패션 액세서리와 선행연구에서 포함되었던 교복과 함께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장식품과 신체변형행동을 패션 액세서리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반지,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팔찌, 발찌, 피어싱, 영구문신, 스티커 문신, 모자, 선글라스, 핸드폰 스트랩, 패션 시계, 패션 안경, 패션 가방, 굽 높은 구두 등을 포함하였다. 패션 시계, 패션 안경, 패션 가방, 패션 운동화란 고등학교의 용의 규정에서 벗어나는 화려하거나 야한 색상, 형태를 의미한다(정혜경, 김세희, 2004; 최은영, 2000; Stall-Meadows, 2003).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현재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고등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추출을 위해서 남학교 4개교, 여학교 4개교, 남녀 공학 학교 1개교를 선정 하였다. 조사 자료의 수집은 2006년 3월 27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지역적으로 중소 도시와 읍·면 지역으로 나누고 시 지역의 남자고등학교와 여자고등학교를 각 2개교씩, 공학학교를 1개교 선택하였고, 읍·면 지역은 군 소재의 고등학교 중에서 4개교를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서 임의로 선정

<표 1> 응답 대상자의 학교 관련 변인의 특성

| 학교 변인 | | 빈도(명) | 백분율(%) |
|-------|--------|-------|--------|
| 유형 | 남자고 | 290 | 43.2 |
| | 남녀 공학교 | 169 | 25.2 |
| | 여자고 | 212 | 31.6 |
| 소재지 | 중·소도시 | 290 | 43.2 |
| | 읍·면지역 | 381 | 56.8 |
| 계열 | 인문계 | 351 | 52.3 |
| | 실업계 | 209 | 31.2 |
| | 예·체능계 | 111 | 16.5 |
| 전 체 | | 671 | 100.0 |

하였다. 선정된 각 학교의 재학생 중 편의 표집된 700명의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수업 직전에 응답하도록 한 후 곧바로 수거하였다.

회수된 70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29부를 제외하고 67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 대상자의 학교 관련 변인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 학교의 유형을 살펴보면 남자고등학교 학생이 43.2%, 여자고등학교 학생은 31.6%, 남·녀 공학교등학교 학생은 25.2% 순으로 이었다. 학교 소재지를 살펴보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이 43.2%,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은 56.8%였고, 학교 계열로는 인문계 학생이 52.3%, 실업계 학생은 31.2%, 예·체능계 학생은 16.5%로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비교적 많았다.

5.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PC(12.0 K for WINDOW)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고등학생의 교복 착용, 교복 변형, 패션 액세서리 착용에 대한 의견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빈도, 백분율을 구했다.

2) 고등학생의 학교 변인에 따른 교복 변형정도와 패션 액세서리 착용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6.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학교 변인, 교복 착용, 교복 변형행동, 패션 액세서리 착용에 관한 문항의 4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43문항이었다.

학교 변인에는 학교 유형, 학교 소재지, 학교 계열 등

3문항으로 선택형이었다. 교복 착용에 관한 의견을 측정하는 문항은 바람직한 점과 불편한 점 2문항으로 선택형으로 작성하였다. 교복변형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들(정혜경, 김세희, 2004; 권숙희, 김혜정, 2002)을 참고하여 변형 이유 1문항, 변형 실태 13문항, 변형 정도에 대한 1문항 등 총 15문항을 작성하였다. 교복 변형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등복 상·하 및 상의 속에 입는 셔츠 또는 블라우스로 한정하였고, 교복 변형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5점 등간척도로 구성하였다. 교복과 함께 착용하는 패션 액세서리 착용 문항은 패션 액세서리 착용행동을 측정하는 23문항이었고, 선택형으로 작성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교복 착용, 변형, 패션 액세서리 착용행동

1) 교복 착용에 대한 의견

고등학생의 교복 착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고등학생들은 교복이 학생 신분을 가장 잘 나타내므로 교복 착용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제일 많았으며, 이어 옷에 신경을 적게 쓰게 되거나 교복은 학교를 상징하고 전통을 계승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교복을 착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 결과는 고등학생들은 교복의 신분이나 학교의 상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여고생은 교복의 품위, 실용성, 순수한 이미지를 원한다고 한 정혜경과 김세희(2004)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맥락이었다. 또 유경숙(1991), 이상희 등(1997)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교복의 신분상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교복은 집단 결속력내지 소속감까지 갖게 해준다고 하였다. 또 교복을 착용하게 되면 학생들이 의복에 신경을 적게 쓰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며 교외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교복 착용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생의 교복 착용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고등학생들은 교복이 활동에 불편하기 때문에 교복 착용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제일 많았으며, 이어 세탁이 불편하거나 디자인이 유행에 떨어진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 결과는 고등학생들이 교복의 실용성과 미적인 면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여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임주희(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교복제작업

<표 2> 교복 착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교복 착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 | 빈도(명) | 백분율(%) | 빈도(명) | 백분율(%) | 빈도(명) | 백분율(%) |
| 1. 학생신분을 가장 잘 나타내므로 | 449 | 67.2 | 22 | 3.3 | 32 | 4.8 |
| 2. 옷에 신경을 덜 쓰게 되므로 | 96 | 14.4 | 182 | 27.2 | 43 | 6.4 |
| 3. 학교의 상징이고 전통을 계승할 수 있어서 | 5 | 0.7 | 13 | 1.9 | 138 | 20.7 |
| 4. 단정해 보이므로 | 10 | 1.5 | 59 | 8.8 | 116 | 17.4 |
| 5. 집단의 규칙범위 내에서 행동하게 되므로 | 24 | 3.6 | 97 | 14.5 | 13 | 1.9 |
| 6. 자기 학교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하므로 | 43 | 6.4 | 94 | 14.1 | 33 | 4.9 |
| 7. 소속감과 유대감이 향상되므로 | 11 | 1.6 | 61 | 9.1 | 66 | 9.9 |
| 8. 빈부차이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 16 | 2.4 | 60 | 9.0 | 51 | 7.6 |
| 9. 경제적 부담이 적으므로 | 10 | 1.5 | 54 | 8.1 | 90 | 13.5 |
| 10. 입고 활동하기에 편하므로 | 0 | 0 | 16 | 2.4 | 39 | 5.8 |
| 11. 체형의 결점을 보완해 주므로 | 3 | 0.4 | 6 | 0.9 | 16 | 2.4 |
| 12. 옷 손질이 편하므로 | 1 | 0.1 | 4 | 0.6 | 30 | 4.5 |
| 합계 | 668 | 100.0 | 668 | 100.0 | 668 | 100.0 |

주) 복수 응답 결과임.

<표 3> 교복 착용이 불편한 이유

| 교복 착용이 불편한 이유 | 빈도(명) | 백분율(%) |
|-----------------------------|-------|--------|
| 1. 활동이 불편하다 | 272 | 40.7 |
| 2. 세탁이 불편하다 | 100 | 15.0 |
| 3. 디자인이 유행에 뒤떨어진다. | 93 | 13.9 |
| 4. 심리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통제되는 기분이다 | 86 | 12.9 |
| 5. 온도 변화에 대처하기가 힘들다. | 70 | 10.5 |
| 6. 변화가 없어서 싫증이 난다. | 19 | 2.8 |
| 7. 모양과 색이 아름답지 못하다. | 9 | 1.3 |
| 8. 개성을 나타낼 수 없다. | 9 | 1.3 |
| 9. 모양과 색이 아름답지 못하다. | 8 | 1.2 |
| 전체 | 668 | 100.0 |

체에서는 활동적이며 유행 경향을 잘 반영한 교복 디자인과 패턴을 개발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교복 변형행동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이유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고등학생들은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교복을 변형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제일 많았고, 이어 개성 추구, 키가 커보이기 위하여, 유행하는 스타일을 따르기 위해서 등의 순으로 많았다. 1990년대 초 여고생이 선호하는 교복 형태는 재킷의 경우 허리가 꼭 끼는 것보다 헐렁한 일자형이나 적당하게 약간 들어간 모양이었고, 스커트는

주름스커트나 약간씩 주름이 잡힌 스커트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어서 몸이 날씬하게 보이는 것 보다 단정하게 보이면서 활동에 편한 스타일 선호하였다(김화순, 2000).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자신만의 독특한 멋이나, 개성을 찾는 자아욕구가 강한 학생들의 교복에 대한 욕구와 사회 환경의 변화에 의해 교복태도가 변화하였다. 고애란 등(1999)의 연구에서는 교복이 체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교복을 변형한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의 변형에 대한 개념과 다른 개념으로 변형에 접근하였다. 또 권수에 등(2003)의 남자 고등학생의 하복 착용 실태 및 착용 만족도 연구에서 하복의 변형 여부를 심미적 착용감, 운동 기능적 착용감, 온열 생리적 착용감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

<표 4> 교복 변형 이유

| 교복 변형 이유 | 빈도(명) | 백분율(%) |
|---------------------------|-------|--------|
| 1.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 115 | 17.1 |
| 2. 개성 추구를 위해서 | 100 | 14.9 |
| 3. 키가 커보이도록 | 93 | 13.9 |
| 4. 유행하는 스타일을 따르기 위해서 | 84 | 12.5 |
| 5.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 73 | 10.9 |
| 6. 자신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 63 | 9.4 |
| 7. 활동하기에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 60 | 8.9 |
| 8. 학생답고 단정히 보이기 위해서 | 45 | 6.7 |
| 9. 친구들과 비슷해 보이기 위해서 | 23 | 3.4 |
| 10. 스트레스 해소 또는 기분 전환을 위해서 | 15 | 2.2 |
| 전체 | 671 | 100.0 |

과, 운동 기능적 착용감에 의한 변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김세희(2003)의 연구에서는 교복 변형의 이유를 몸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로 교복의 실용적 측면을 위한 변형이 가장 많은 것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날씬하게 보이거나 개성 추구를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을 보면 점점 학생들이 교복의 실용적 측면보다는 미적 또는 개성 추구 측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복을 변형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생들의 경우 동료 집단 사이에서의 유행스타일에 대한 동조는 학교 측의 규제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 개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무조건 강압적인 규제로만 묶어 두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황진숙 등(2002)은 독특하고 개성적인 이미지를 선호하는 학생일수록 교복에 불만족하여 교복 변형을 많이 한다고 하였다.

고등학생들의 교복 재킷 변형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 재킷의 어깨너비, 소매길이, 소매폭 등을 그대로 착용하는 비율이 75.3%, 75.1%, 73.7%로 높았으나, 재킷의 몸판 길이를 짧게 변형하는 비율도 40.0%나 되었다. 여학생의 경우, 재킷의 소매길이를 그대로 착용하는 비율이 각각 75.3%, 73.3%로 높으나, 재킷의 몸판길이를 짧게 변형하는 비율도 43.6%나 있었고, 이어 허리둘레는 좁게 변형하는 비율이 39.9%로 높았다. 여학생의 경우 재킷의 몸판길이와 허리둘레, 재킷의 어깨너비 등을 모두 좁고 짧게 줄여 몸에 꼭 끼는 형태로 변형하는 경향을 보였다. 황진숙 등(2002)은 여학생이 남

학생에 비하여 상의 품과 어깨를 좁게, 상의 소매를 짧게 변형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된 경향이였다. 임주희(2004)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의 경우 선호하는 재킷의 허리선 모양은 허리에 꼭 맞는 형, 선호하는 재킷의 길이는 허리선까지로 중학생보다 좁고 짧아지는 경향을 보인 것과 일치하였다. 고등학생들의 재킷의 길이, 허리둘레, 어깨너비, 소매길이, 소매폭 등 모든 항목을 변형하는 비율을 비교해 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약간 높았다.

고등학생들의 셔츠 또는 블라우스 변형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 셔츠의 어깨너비, 소매길이, 소매폭을 그대로 착용하는 비율이 77.8, 80.2%, 76.4%로 높으나, 몸판 길이를 짧게 변형하는 비율도 25.8%로 높았다. 여학생의 경우 블라우스의 소매길이를 그대로 착용하는 비율이 83.8%로 높으나 허리둘레는 좁게 변형하는 비율도 22.8%로 높았고 이어 소매폭을 좁게 하는 비율이 19.5%, 몸판 길이를 짧게 변형하는 비율은 18.8%이었다. 남학생들은 셔츠의 몸판 길이와 허리둘레는 좁게 변형하고 어깨너비는 상대적으로 넓게 변형하는 비율이 높아 재킷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전형적으로 이상적인 남자의 체형인 역 삼각형의 실루엣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반면 여학생들은 블라우스의 허리둘레, 어깨너비, 소매폭 등의 항목을 좁게 변형하여 날씬한 실루엣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정도는 재킷에 비하여 낮았다.

고등학생들의 교복 하의 변형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 바지의 길이를 그대로 착용

<표 5> 재킷 변형행동

| 변형 위치 | 형태 | | 남학생 명(%) | 여학생 명(%) |
|-------|--------|----|-----------|-----------|
| 몸판 길이 | 변형 | 짧게 | 146(40.0) | 132(43.6) |
| | | 길게 | 13 (3.6) | 7 (2.3) |
| | 그대로 착용 | | 202(56.4) | 164(54.1) |
| 허리둘레 | 변형 | 좁게 | 108(29.6) | 121(39.9) |
| | | 넓게 | 20 (5.5) | 4 (1.3) |
| | 그대로 착용 | | 234(64.9) | 178(58.8) |
| 어깨너비 | 변형 | 좁게 | 55(15.1) | 90(29.8) |
| | | 넓게 | 35 (9.6) | 3 (0.9) |
| | 그대로 착용 | | 272(75.3) | 210(69.3) |
| 소매길이 | 변형 | 짧게 | 64(17.5) | 54 (17.8) |
| | | 길게 | 27 (7.4) | 21 (6.9) |
| | 그대로 착용 | | 271(75.1) | 228(75.3) |
| 소매폭 | 변형 | 좁게 | 72(19.7) | 76(25.1) |
| | | 넓게 | 24 (6.6) | 5 (2.6) |
| | 그대로 착용 | | 266(73.7) | 222(73.3) |

<표 6> 셔츠 또는 블라우스 변형행동

| 변형 위치 | 형태 | | 남학생 명(%) | 여학생 명(%) |
|-------|--------|----|-------------|-------------|
| 몸판 길이 | 변형 | 짧게 | 113(30.9) | 57(18.8) |
| | | 길게 | 19 (5.3) | 7 (2.3) |
| | 그대로 착용 | | 230(64.8) | 239(78.9) |
| 허리둘레 | 변형 | 좁게 | 94(25.8) | 69(22.8) |
| | | 넓게 | 18 (4.9) | 0 (0.0) |
| | 그대로 착용 | | 250(69.3) | 234(77.2) |
| 어깨너비 | 변형 | 좁게 | 49(13.4) | 50(16.5) |
| | | 넓게 | 32 (8.8) | 3 (0.9) |
| | 그대로 착용 | | 281(77.8) | 250(72.6) |
| 소매길이 | 변형 | 짧게 | 48(13.2) | 36(11.9) |
| | | 길게 | 24 (6.6) | 13 (4.3) |
| | 그대로 착용 | | 290(80.2) | 254(83.8) |
| 소매폭 | 변형 | 좁게 | 62(17.0) | 59(19.5) |
| | | 넓게 | 24 (6.6) | 4 (1.3) |
| | 그대로 착용 | | 276(76.4) | 240(79.2) |

주) 남학생의 경우는 셔츠, 여학생의 경우는 블라우스에 응답하였음.

<표 7> 하의 변형행동

| 변형 위치 | 형태 | | 남학생 명(%) | 여학생 명(%) |
|-------|--------|----|-------------|-------------|
| 길이 | 변형 | 짧게 | 39(10.7) | 62(20.5) |
| | | 길게 | 63(17.3) | 79(26.1) |
| | 그대로 착용 | | 260(72.0) | 162(53.4) |
| 허리둘레 | 변형 | 좁게 | 48(13.2) | 74(24.4) |
| | | 넓게 | 45(17.3) | 20 (6.6) |
| | 그대로 착용 | | 269(69.5) | 209(69.0) |
| 폭 | 변형 | 좁게 | 42(11.5) | 49(16.3) |
| | | 넓게 | 82(22.5) | 44(14.5) |
| | 그대로 착용 | | 239(66.0) | 210(69.2) |

주) 남학생의 경우에는 바지, 여학생의 경우에는 스커트가 해당됨.

용하는 비율이 72.0%로 높으나, 바지의 폭을 넓게 변형하는 비율도 22.5%나 되었다. 여학생의 경우 스커트의 폭과 허리둘레를 그대로 착용하는 비율이 각각 69.2%, 69.0%로 높으나, 길이의 경우는 짧게 변형하는 비율은 20.5%, 길게 변형하는 비율이 26.1%로 높았다. 남·녀 고등학생들의 하의의 길이, 허리둘레, 폭 등 모든 항목을 변형하는 비율을 비교해 보면 남학생들은 바지의 폭을 많이 변형하였고 여학생들은 스커트의 길이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진숙 등(2002)은 남학생은 바지 폭을 넓게 변형하고 여학생은 스커트 길이를 짧게, 스커트 폭을 더 넓게 변형한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는 교복의 길이나 폭은 유행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위치이며 착용하는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인 점을 교복 제작업체에서는 관심있게 관찰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교복 변형 실태를 요약하면 남학생의 경우 재킷의 몸판 길이를 짧고 좁게, 바지는 길고 넓게 변형하여 힙합 스타일의 경향을 보였다. 이는 김세희(2003)의 연구에서 남학생들이 바지의 헐렁한 밑단을 줄여 입는다는 결과와 다른 결과로 고등학생들이 원하는 교복형태는 유행 경향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황진숙 등(2002)이 지적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복 변형이 많았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었다. 또 여학생의 교복을 변형한 비율을 살펴보면 하의보다는 상의를, 상의 중에서는 재킷을 재킷 속에 입는 셔츠나 블라우스보다 더 많이 변형하여 겉에 입는 옷을 속에 입는 옷보다 더 많이 변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생들이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전체적 경향을 살

<표 8> 학교 유형에 따른 패션 액세서리 착용행동 명(%)

| 구분 \ 품목 | 사용함 | 사용안함 |
|-------------|-----------|-----------|
| 1. 핸드폰 스트랩 | 398(59.9) | 267(40.1) |
| 2. 패션운동화 | 270(40.6) | 395(59.4) |
| 3. 패션 가방 | 260(39.1) | 405(60.9) |
| 4. 패션 양말 | 259(39.1) | 405(60.9) |
| 5. 패션 시계 | 248(37.3) | 417(62.7) |
| 6. 패션 안경 | 137(23.6) | 508(76.4) |
| 7. 반지 | 146(23.4) | 509(76.6) |
| 8. 화려한 머리장식 | 151(22.7) | 514(77.3) |
| 9. 장식용 열쇠고리 | 151(22.7) | 514(77.3) |
| 10. 모자 | 141(21.2) | 524(78.8) |
| 11. 귀걸이 | 129(19.6) | 535(80.4) |
| 12. 목걸이 | 124(19.1) | 538(80.9) |
| 13. 컬러 렌즈 | 120(18.0) | 545(82.0) |
| 14. 팔찌 | 95(14.3) | 570(85.7) |
| 15. 굽 높은 구두 | 90(13.6) | 575(86.4) |
| 16. 두건 | 69 (6.2) | 596(89.6) |
| 17. 피어싱 | 63 (9.5) | 602(90.5) |
| 18. 썬글래스 | 57 (8.6) | 608(91.4) |
| 19. 발찌 | 54 (8.1) | 611(91.9) |
| 20. 브로치 | 48 (7.2) | 617(92.8) |
| 21. 스카프 | 41 (6.2) | 624(93.8) |
| 22. 스티커문신 | 38 (5.7) | 627(94.3) |
| 23. 영구문신 | 31 (4.7) | 634(95.3) |

해보면 (표 8)과 같다.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핸드폰 스트랩은 학생들의 높은 핸드폰 소지율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정혜경과 김세희(2004)이 여고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핸드폰, 호출기 장신구의 사용이 제일 많았던 결과와 일치되었다. 다음으로 패션 운동화, 패션 가방, 패션 양말, 패션 시계 등이 높은 착용비율을 보여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필수적인 품목들에 다양한 장식 행동을 함으로써 교복 변형 행동으로 나타낼 수 없었던 외관적 변형행동에 대한 보상표현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비록 사용비율이 높지는 않았으나 피어싱이나 영구 문신과 같은 학생의 신분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장식도 많이 해서 일부 학생들의 패션 액세서리 착용이나 교복 변형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상당히 높고 지나친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패션 액세서리 착용 행동은 학교 측의 규제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게 외관적으로 빨리 눈에 띄지 않으며, 취급이 용이하고, 때와 장소에 따라 탈착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쉽게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였다.

2. 학교 변인에 따른 교복 변형과 패션액세서리 착용행동

학교 변인에 따른 교복 변형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교복 변형 정도는 학교 소재지에 따라 유의차가 없었고, 학교 유형과 학교 계열에 따라 유의차가 있었다. 남자고등학교 학생들은 교복을 변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남·녀 공학교와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은 교복 변형을 많이 하거나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남·녀 공학교나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남자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외모나 유행에 대한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되었다.

학교 계열에 따른 교복 변형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교복 변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실업계와 예·체능계 학생들은 교복 변형을 많이 하거나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위하여 학업에 전념하느라 외모나 유행에 관심을 둘 시간 여유가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되었다. 이에 반하여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나 개성이 강한 예·체능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외모나 유행에 더 많은 관심을 두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고등학생들이 교복과 함께 많이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패션 액세서리의 23개 항목에 대하여 학교 변인에

<표 9> 학교 변인별 교복 변형 정도

관측빈도(기대빈도)

| 학교 변인 \ 교복변형정도 | 전혀 변형하지 않음 | 거의 변형하지 않음 | 그저 그렇다 | 약간 변형했음 | 많이 변형했음 | x ² |
|----------------|------------|------------|------------|------------|-----------|----------------|
| 학교유형 | 남자고 | 92 (75.1) | 98 (82.0) | 74 (97.6) | 21 (29.5) | 37.98*** |
| | 남·녀공학교 | 34 (43.6) | 46 (47.6) | 62 (56.6) | 16 (15.0) | |
| | 여자고 | 48 (55.3) | 46 (60.4) | 90 (71.8) | 23 (19.1) | |
| 학교계열 | 인문계 | 106 (91.0) | 111 (99.4) | 105(118.3) | 23 (31.4) | 27.40** |
| | 실업계 | 46 (54.5) | 47 (59.5) | 81 (70.8) | 25 (18.8) | |
| | 예·체능계 | 22 (28.4) | 32 (31.0) | 40 (36.9) | 12 (9.8) | |

P <.01 *P <.001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 소재지에 따른 유의차는 없었고, 학교 유형과 계열에 따른 유의차가 있었다. 학교 소재지는 본 연구의 앞부분에서 교복변형에 대해서도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던 변인으로 일관성을 볼 수 있었다.

학교 유형에 따라 패션 액세서리 착용행동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23개 품목중 15개 품목에서 유의차가 있었다. 두건과 영구문신을 제외

한 패션 액세서리 품목에 대하여 남자고등학교 재학생들은 여자고등학교나 남·녀공학교 학생들보다 착용하는 비율이 낮았다.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외모에 더 관심이 많아 교복변형을 더 많이 한다고 했던 본 연구의 앞부분과 일관성을 보이는 결과이다.

학교 계열에 따른 패션 액세서리 착용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23개

<표 10> 학교 유형에 따른 패션 액세서리 착용행동

관측빈도(기대빈도)

| 품목 | 구분 | 남자고 | 남·녀공학교 | 여자고 | χ^2 |
|-------------|----|------------|------------|------------|-----------|
| 1. 핸드폰 스트랩 | | 143(171.9) | 114(100.3) | 141(125.8) | 29.93*** |
| 2. 패션 운동화 | | 104(116.6) | 63(68.0) | 103(85.3) | 26.26*** |
| 3. 패션 양말 | | 95(33.1) | 61(36.5) | 104(49.1) | 28.68*** |
| 4. 패션 시계 | | 83(28.9) | 67(40.1) | 98(47.4) | 38.56*** |
| 5. 화려한 머리장식 | | 17(65.7) | 49(38.3) | 86(48.0) | 114.76*** |
| 6. 장식용 열쇠고리 | | 56(65.2) | 47(38.1) | 48(47.7) | 19.06* |
| 7. 귀걸이 | | 39(40.2) | 25(23.4) | 65(29.4) | 46.43*** |
| 8. 컬러 렌즈 | | 31(51.8) | 36(30.2) | 53(37.9) | 25.38*** |
| 9. 팔찌 | | 40(41.0) | 29(23.9) | 26(30.0) | 16.32* |
| 10. 두건 | | 39(29.8) | 19(17.4) | 11(21.8) | 15.49** |
| 11. 피어싱 | | 16(27.2) | 18(15.9) | 29(19.9) | 21.09** |
| 12. 썬글래스 | | 19(24.6) | 26(14.4) | 12(18.0) | 26.83*** |
| 13. 발찌 | | 21(23.3) | 19(13.6) | 14(17.1) | 18.53* |
| 14. 브로치 | | 19(23.3) | 15(13.6) | 14(17.1) | 18.53* |
| 15. 영구문신 | | 15(13.4) | 11(7.8) | 5(9.8) | 15.99* |

* P< .05, ** P< .01, *** P< .001

<표 11> 학교 계열에 따른 패션 액세서리 착용행동

관측빈도(기대빈도)

| 품목 | 구분 | 인문계고 | 실업계고 | 예·체능계고 | χ^2 |
|-------------|----|------------|------------|----------|----------|
| 1. 핸드폰 스트랩 | | 187(208.1) | 123(123.8) | 88(65.7) | 19.61*** |
| 2. 패션 운동화 | | 128(143.3) | 102(85.2) | 43(45.2) | 18.65* |
| 3. 패션 가방 | | 116(136.0) | 103(80.9) | 41(42.9) | 22.87** |
| 4. 패션 양말 | | 128(136.0) | 96(80.9) | 36(42.9) | 18.37* |
| 5. 반지 | | 65(81.6) | 66(48.5) | 25(25.7) | 22.93** |
| 6. 화려한 머리장식 | | 53(79.0) | 56(47.0) | 42(24.9) | 44.00*** |
| 7. 장식용 열쇠고리 | | 60(79.0) | 61(47.0) | 30(24.9) | 19.00* |
| 8. 귀걸이 | | 50(68.0) | 61(40.4) | 19(21.5) | 32.55** |
| 9. 목걸이 | | 60(66.4) | 43(39.5) | 24(21.0) | 20.55* |
| 10. 컬러렌즈 | | 42(62.8) | 54(37.3) | 24(19.8) | 23.69** |
| 11. 팔찌 | | 34(49.7) | 44(29.5) | 17(15.7) | 20.51** |
| 12. 피어싱 | | 17(32.9) | 34(19.6) | 12(10.4) | 29.89*** |
| 13. 썬글래스 | | 14(29.8) | 31(17.7) | 12(9.4) | 35.16*** |
| 14. 발찌 | | 15(28.8) | 30(17.1) | 10(9.1) | 30.69*** |
| 15. 브로치 | | 5(4.3) | 44(29.5) | 17(15.7) | 20.51** |
| 16. 스카프 | | 11(21.4) | 21(12.8) | 9(6.8) | 21.02** |
| 17. 스티커문신 | | 9(19.9) | 21(10.8) | 8(6.3) | 26.08*** |
| 18. 영구문신 | | 8(16.2) | 17(8.2) | 6(5.5) | 20.79*** |

* P< .05, ** P< .01, *** P<.001

품목 중 18개 품목에 대하여 유의차가 있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실업계나 예·체능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보다 패션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비율이 낮았다. 이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분위기가 대학입시 위주로 운영되는데 반하여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계 고등학교나 개성이 강한 예·체능계 고등학생들이 패션 액세서리를 더 많이 착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측되었으며, 이 결과는 실업계나 예·체능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교복을 더 많이 변형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앞부분과 일관성을 볼 수 있었다. 또 학교 변인 중 학교의 소재지에 따른 교복변형이나 패션 액세서리 착용행동의 유의차가 없었으나 학교 계열과 학교 유형에 따른 유의차가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교복 착용과 변형, 그리고 패션 액세서리 착용행동을 연구하여 학생들에게 유행, 활동성, 심미적 만족도가 높은 교복을 제공하고, 학교 측에 학생들의 교복 지도에 필요한 합리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교복제작업체에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복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녀학생 671명이었고, 본 연구자들이 작성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들은 교복이 학생신분을 가장 잘 나타내 주기 때문에 교복 착용이 바람직하다고 하였고, 많은 학생들이 교복은 활동에 불편하다고 불만족하였다. 고등학생들이 교복의 실용적 측면 보다는 미적인 측면을 위해 교복 변형을 많이 하였다. 재킷과 같이 겹에 입는 옷의 경우 길이는 짧고 폭은 좁게 변형하는 경우가 많았고, 셔츠나 블라우스와 같이 속에 입는 옷은 변형 정도가 낮았으며, 하의의 경우 길어지고 넓게 변형하여 최근의 유행 경향을 따르고 있었다. 교복과 함께 사용하는 패션 액세서리로는 장식적인 핸드폰 스트랩 사용이 가장 많았고, 패션 운동화, 패션 가방, 패션 양말, 패션 시계 등 필수적 품목들이었다.

둘째, 남자고등학교 학생들과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교복 변형을 적게 하였고, 남·녀 공학교, 여자고, 실업계 또는 예·체능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날씬해 보이고 개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교복을 변형하거나 패션 액세서리 착용을 많이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상적인 교복, 교복 변형, 패션 액세서리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의견이나 실제 변형 정도는 유행과 학생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의 소재지보다는 학교의 유형이나 계열이 학생들의 교복변형과 패션 액세서리 착용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과거에 비하여 다양한 교복이 대량생산되어 고등학생들은 교복의 선택 폭이 훨씬 넓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고등학생들은 과도하게 교복을 변형하거나 장식적인 패션 액세서리를 착용하였고, 이런 행동은 교육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학교 측에서도 학생지도에 고심하고 있는 영역이다. 고등학생들에게 교복의 심미성이 교복에서 추구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교복 지도시 교복 착용의 주체자인 학생의 감각을 배려하고 합리적으로 패션 액세서리 착용 범주를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학교에서는 교복 선택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패션 액세서리 착용에 대한 규제 시 유연성을 발휘하여 학생들의 변화된 의식 수준이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복 제작업체들은 너무 디자인만을 강조하여 학생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고등학생들이 교복에서 추구하는 활동성, 실용성, 변화된 미적 감각 등을 반영하여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강조하며 품이 넓은 편안한 착용감, 시각적으로 날씬한 스타일의 교복의 패턴, 소재, 디자인 개발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라북도내에 위치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로 제한했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확대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복 변형과 패션 액세서리 착용행동에 대한 의견을 측정하는 문항은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본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교복, 교복변형, 패션 액세서리 착용행동

참 고 문 헌

- 고애란, 김양진, 심정은 (1999). 여고생의 교복관련 행동과 심리적 특성 및 의복태도 관련 연구. *연세대 생활과학논집*, 12, pp. 31-34
- 권수애, 최종명, 김인화 (2003). 남자고등학생의 하복착용실태 및 착용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14(10), pp. 45-55.
- 권숙희, 김혜정 (2002). 제주지역 여고생의 교복 변형에 따른 치수 및 교복 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

- 지, 11(4), pp. 401-413.
- 김덕하, 김인숙 (2001). 여중생 성장을 고려한 최적 교복치수선정: 자켓과 스커트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2), pp. 315-326.
- 김세희 (2004). 여고생의 교복행동에 관한 연구. 경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숙 (2001). 중등학교 학부모, 교사, 학생의 교복만족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4(2), pp. 15-25.
- 김영인, 강혜원 (1981). 여자 중고등학생들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교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5(2), pp. 13-19.
- 김태련 (2004).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매일신문 (2004. 03. 03). p.3.
- 신은숙 (1997). 교육학의 이해. 서울: 동인.
- 유경숙 (1991). 여고생의 교복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3), pp. 263-270.
- 유덕화, 박찬부 (1991). 여자중고등학생의 복식행동과 복장규범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1), pp. 147-16.
- 이명희, 송영은 (2002). 청소년의 자기 이미지와 교복변형과의 관계 연구. *복식문화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pp. 47-48.
- 이부희, 고애란, 김양진 (1996). 남녀 중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5), pp. 131-144.
- 이상희, 김현식, 손원교 (1997). 남녀고등학생의 교복만족도, 의복관심도,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2), pp. 383-39.
- 이소은 (2001). 남녀 중고등학생의 신체이미지와 교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내 남녀공학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희 (1988). 여고생의 교복과 자유복에 대한 태도. 서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코노미 21 (2006. 02. 13.). p. 4.
- 이혜주 (2004). 중고 여학생의 교복만족도와 치수 적합성에 관한 연구: 동복을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6(2), pp. 21-34.
- 임주희 (2004). 여중고등학생의 교복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하는 디자인.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경, 김세희 (2004). 여고생의 교복 및 장식행동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2(1), pp. 136-150.
- 정혜원, 정인순 (2005). 여자중고등학생들의 교복평가와 교복변형. *한국의류산업학회지*, 7(2), pp. 179-186.
- 천춘애, 이송자, 이수정, 홍정민 (1994). 고등학생의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여성문제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 109-127.
- 최은영 (2000).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의생활 태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진숙, 안명화, 용유진, 유승연 (2002). 남녀 고등학생의 교복이미지 선호와 교복 변형행동의 비교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3), pp. 243-247.
- Hurlock, E. B. (1978). *Development psychology*. New Deli: Tata McGraw Hill Pub.
- Ryan, M. S. (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Rinehart Winstone.
- Stall-Meadows, C. (2003). *Know your fashion accessories*. Fairchild Books & Visuals.

(200. 02. 23 접수; 2007. 05. 22 채택)